

# KIA 떠난 김주찬·LG 은퇴 정근우 '격변의 스토브리그'

SK 사령탑 김원형 선임...한화 선수 11명·두산 13명 방출  
'성과 의문' KIA 조계현 단장 재계약 여부·LG 새 사령탑 관심

도전의 2020시즌이 격변의 스토브리그를 맞았다.

2020시즌은 말 그대로 KBO에 도전의 시간이었다.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시즌 개막과 폐막이 늦어졌고, 많은 시간을 무관중 속에서 보냈다.

어려움 속에서도 정규시즌은 중단 없이 시즌 마지막날까지 치열한 순위 싸움을 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역사에 남을 시즌이 끝난 뒤 격변의 스토브리그가 시작했다. 특히 지난 주말 설 새 없이 뉴스들이 쏟아지면서 KBO리그가 요동쳤다.

사령탑 이동, 베테랑들의 작별 뉴스가 주말을 뜨겁게 달궜다.

선동열 감독의 차기 행선지로도 언급됐던 SK 와이번스의 새 사령탑에는 김원형 두산 베어스 코치가 선임됐다. 김 감독은 계약 기간 2년, 계약금 2억원, 연봉 2억5000만원 등 총액 7억원에 친정으로 복귀하게 됐다.

'회수분 야구' 두산은 한용덕, 이강철에 이어 또 다른 감독을 배출해 눈길을 끌었다. 다시 한번 포스트 시즌 중에 주목을 받은 두산은 이번에는 아예 김 코치를 빼고 한국시리즈에 도전한다.

베테랑들은 대거 칼바람을 맞았다. 올 시즌 한화 '캡틴'을 맡았던 이용규를 필두로 송광민, 최진행, 윤규진, 안영명 등이 대거 방출됐다. 준플레이오프에서 질주를 멈춘 LG도 7일 여건우, 문광은 등 11명에게 방출을 통보했다.

두산도 8일 13명의 선수와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현역 홀드왕' 권혁과 함께 투수 김승희, 포수 정상호는 은퇴의사를 밝히면서 그라운드를 떠난다.

지난달 30일 투수 임기준, 외야수 유재신 등 선수단을 정리했던 KIA에서도 작별소식이 들려왔다.

KIA는 2017년 캡틴으로 우승 순간을 함께 했던 김주찬을 자유계약 선수로 풀었다. 올 시즌 주전 전력에서 제외된 김주찬은 허리 통증으로 고전하는 등 7경기 출전에 그쳤다.

또 동갑내기 '절친' 이범호가 퓨처스 총괄코치에 선임되는 등 여러 상황이 맞물리면서 KIA와의 인연을 정리했다.

내년으로만 40세가 되는 김주찬은 현역 생활에 대한 의지를 보이며 새로운 팀을 찾고 있다.

LG에서 마지막 불꽃을 태운 정근우도 8일 은퇴를 발표하면서 '작별의 주말'이 됐다.

하지만 격변의 스토브리그는 이제 시작이다. 새 감독진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현재 LG와 한화 사령탑이 공석이다. LG의 '가을야구'를 이끌었던 류중일 감독은 지난 6일 사의를 표명했다.

LG는 올 시즌 한 때 2위 싸움을 했지만 최종전에서 4위로 내려앉았고 두산에 플레이오프 티켓을 내줬다. 류 감독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먼저 사의를 밝혔다. LG도 이를 수용하면서 새로운 사령탑을 모색하고 있다.

각 팀이 선수들은 물론 코치진까지 개편하면서 내년 시즌 많은 팀이 새판을 짜게 된다.

KIA도 변화의 바람 앞에서 서 있다.

KIA는 야심차게 특급 외국인 감독을 영입했지만 2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했다. 성적과 육성이라는 목표에서 오락가락했던 KIA는 다시 육성을 강조하면서 이범호 총괄코치라는 도박 같은 코치진 개편도 했다.

임기 3년 동안 내부 다지기와 성적에서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성적을 낸 조계현 단장의 재계약 여부가 팬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또 전반적인 KBO리그 사령탑·코치진 변동 속 KIA 코치진에서도 도미노 이동이 발생할 수 있다.

어느 해보다 뜨거운 스토브리그가 야구팬들을 기다리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퓨처스리그 총괄코치' 이범호

## “지도자 경험 없어도 소신대로 실력·인성 갖춘 선수에 기회”



밀어붙일 땐 과감하게...경험 아낌없이 전수할 것

기대 반 우려 반 속 KIA 타이거즈의 이범호 총괄코치 체제가 시작됐다.

KIA 마무리캡틴단이 지난 6일 함평 챌린저스 필드에서 첫 훈련을 하고 새 시즌을 위한 워밍업에 나섰다. 2군 선수단, 신인선수들로 구성된 함평 캠프단은 이범호 총괄코치의 지휘 아래 오는 20일까지 호흡을 맞추게 된다.

파격적인 코치진 개편 속이 총괄코치의 지도자 생활도 막을 열었다. KIA는 물론 타 구단도 주목하는 파격적인 체제, 눈길을 한 몸에 받은 이 총괄코치는 “모든 지도자는 처음이 있다. 지도자 경험이 없는 게 장점인 부분도 있다”며 “실력과 성실을 원칙으로 선수들을 육성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처음 제의를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단장님이 거짓말하시는 줄 알았다. 내가 한 첫마디가 “별써 해도 되겠습니까?”였다. 육성도 필요하고 팀을 쇠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어려운 자리이고 외국인 감독이기 때문에 많이 도와드려야 한다고 하셔서, 이를 목표로 삼아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제의받고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 했을 것 같은데

▲제의를받은 당일에 발표가 됐다. 코치생활을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가지 것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차츰차츰 적응해야 할 것 같다. 훌륭한 선배, 코칭스태프가 많기 때문에 같이 노력하고 많은 대화 나누면서 선수들 키우고 1군 선수들이 성적낼 수 있도록 밑에서 잘하겠다.

▲처음 선수들 앞에서 섰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얼굴이 잘 안 보였다. 항상 뒤에서 코칭스태프를 보다가 내가 선수들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봐야 하니까 아직은 습관이 안 돼서 그런지 잘 안 보였다. 한 명 한 명 연구하고 코칭스태프와 이야기 나누면 보이기 시작할 것 같다. 내가 선수 생활 걸어온 것처럼 멋진 선수 생활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좋은 사람, 좋은 선수가 되도록 뒷받침하겠다.

▲윌리엄스 감독과는 이야기 나눴는지

-총괄코치 이야기를 들은 날 감독님과 미팅을 했다.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들었다. 감독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다. 내려주시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고 선수들에게 설명도 잘해줘야겠다. 1군이 잘 되고 좋은 선수 기르는 게 구단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임명해주신 것 같다. 감독님, 구단 생각 잘 알아야 된다. 머리는 아프다.

▲선수들에게 당부할 게 있다면

-같은 시간이 주어지지만 어떤 선수는 대스타가 되고, 어떤 선수는 그만두고 나가는 상황이 생긴다. 대스타로 가는 길을 목표로 삼으면

좋겠다. 그것은 훈련밖에 없다. 어릴 때 훈련을 많이 해야 몸에 배고 좋은 성격으로 나타난다. 많은 훈련 하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도 변화시키고 그런 것을 첫 번째로 생각하고, 목표로 하겠다.

▲지도자 경험이 없다는 부분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다

-누구나 처음에는 지도자 경험 없이 시작한다. 나는 큰 폭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여러 가지 면에서 다 배울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다. 20년이라는 선수생활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습득하고 맞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장점이 있다. 모르는 상황에서 제대로 한번 밀어붙일 수 있다. 가지고 있는 것에 플러스해서 옆에 좋은 코치님들과 밀어붙일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다.

▲선수들에게 강조하는 원칙은

-실력이다. 실력 좋은 선수에게 무조건 많은 기회 주고 그 선수들이 클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벌어줄 수 있어야 한다. 운동할 때 성실함과 기본적인 생활의 성실함, 좋은 마인드가 전제 조건이 될 것 같다. 운동 열심히 해서 좋은 실력가지고 있으면 빠른 시간 안에 윌리엄스 감독이 풀입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선수들에게 가장 큰 선물일 것 같다. 야구 열심히 하고 야구 잘하고 성실하게 하는 선수부터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원칙 방향으로 가겠다.

▲첫 출근날 기분이 어땠는지

-앞에 총괄 자리가 붙는 것도 어색하고 다 어색했다. 코칭스태프실 들어가는 것도 불편하고 방도 또 따로 주시고 가방 들고 가는 것도 이상했다. 적응 안 된 것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적응되는 것이니까. 코칭스태프 다 봐왔고 어떤 성격인지 다 아니까 거기에 잘 맞춰서 내 편으로 잘해서 가겠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평가되고 육성팀이 평가되는 것이니까 무거운 것도 있지만 해내야 한다는 강한 의지도 생긴다. 모자라겠지만 모자라지 않게 많은 것들을 해보겠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휴~아웃될 뻔” 7일 함평야구장에서 열린 제10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 카펫진팀과 상무스타치과병원과의 8강전. 8-8 동점을 이룬 6회 말 무사 김성민 타석 때 1루주자 이한율이 도루를 시도해 세이프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담양애-뉴욕야시장 4강 마지막 자리 놓고 격돌

광주·전남 사회인야구...광일리그 14일 8강 마지막 경기  
무등리그, 파죽지세·자연환경·파트너스·카펫진팀 확정

무등기 결승행 티켓을 다룬 무등리그 '4강팀'이 확정됐다.

제10회 아로마라이프배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 5주 차 경기가 지난 7일 함평야구장에서 열렸다.

무등리그 8강전 두 경기가 진행되면서 파죽지세, 자연환경에 이어 파트너스, 카펫진팀이 4강팀이 됐다.

파트너스는 썬프렌즈와의 공방전 끝에 4회 시간제한 승으로 준결승행을 확정했다.

투 팀은 1회부터 5점씩 주고받으며 화력전을 펼쳤다. 2회와 3회 역전과 재역전의 접전 속 파트너스 두 번째 투수 위동철이 4회초를 무실점으로 막았다. 그리고 4회말 1점을 뽑으면서 파트너스가 승리를 확정했다. 2번 이영준이 2개의 도루 포함 3득점을 하면서 타선을 이끌었다.

카펫진팀은 행운의 승리를 쟁겼다. 상무스타치과병원과의 대결에서 8-8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지만 추점승으로 무등리그 4강 마지막 자리를 차지했다. 2번 이석우가 3타점의 활약을 하면서 수훈 선수가 됐다.

이어 광일리그 8강전 3경기도 진행됐다. 청운에너지, 썬더스, (주)삼진이 승자가 됐다.

담양로얄스를 상대한 청운에너지는 1회초 수비에서 8실점을 하면서 어려운 출발을 했지만 10-9, 1점 차 승리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마무리로 나온 김기정이 2이닝을 2탈삼진 무실점으로 책임지면서 청운에너지의 승리를 이끌었다.

썬더스는 4회 12점을 뽑는 화력을 과시하면서 22-6, 대승을 장식했다.

1회 4실점을 한 썬더스는 1회말 바로 5점을 만들면서 승부를 뒤집었다. 2회와 3회 3점씩 보낸 썬더스는 4회 12점을 폭발하면서 승리를 확정했다. 박건후가 4회를 모두 책임지면서 승리투수가 됐다.

(주)삼진은 선발 남준성의 4이닝 1실점의 호투를 앞세워 알바트로스를 11-1로 제압했다. 남준성이 1-2회를 무실점으로 막는 사이 타선이 5점을 만들면서 기싸움에서 앞섰다. (주)삼진은 3회 1실점을 했지만 이어진 공격에서 바로 1점을 만회하며 상대의 추격 의지를 꺾었다. 남준성은 9개의 탈삼진도 뽑아내면서 승리를 자축했다.

한편 광일리그 4강 마지막 타석 한 장은 14일 6주 차 첫 경기인 담양애와 뉴욕야시장의 대결에서 결정된다.

이날 무등·광일리그 준결승전도 이어서 진행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무등기 5주 차 전적]  
◇무등리그 8강전  
◆1경기 (4회 시간제한)  
썬프렌즈 5230-10  
파트너스 5321-11  
▲승리투수: 위동철 ▲수훈선수: 이영준 (2도루 3득점)  
◆2경기 (추첨승)  
카펫진팀 141200-8  
상무스타치과병원 300500-8  
▲수훈선수: 이석우 (3타점 1득점)  
◆3경기 (4회 시간제한)  
담양로얄스 8100-9  
청운에너지 6121-10  
▲승리투수: 김기정 ▲수훈선수: 박오차 (2도루 3득점)  
◆4경기 (4회 콜드)  
썬더스 43312-22  
풀카운트 5100-6  
▲승리투수: 박건후 ▲수훈선수: 노건명 (3안타 4득점 2도루)  
◆5경기 (4회 콜드)  
알바트로스 0010-1  
(주) 삼진 1415-11  
▲승리투수: 남준성 ▲수훈선수: 허진원 (3득점)